

국내 허약자우증후군(WCS)의 발생실태조사

류일선, 도윤정, 서국현, 허태영, 강석진, 정영훈, 최창용, 손동수

축산연구소, 농촌진흥청, 수원 441-704, 한국

서론: 허약자우증후군은 우군의 사육규모가 클수록 다발하며 소의 증식의 걸림돌과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질병이고, 1960년 미국의 육우송아지에 처음 발생보고되었다. 미국의 경우 1993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, 미국의 경우 태어난 송아지의 1.3~ 20.8% 발생(USDA : APHIS, 1994), 사육규모가 클수록 다발하는 경향치를 보였다고 보고(USDA : APHIS, 1994)되고 있으며, 허약자우의 80%이상이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며, 주요한 원인은 소화기와 호흡기질환으로 면역기능의 저하에 기인(Koniwa, 2004)한다고 하였다. 선진축산 국가와 같이 국내 소 사육농가가 전업화 및 대규모화됨에 따른 신생자우허약 증후군(WCS)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발생실태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재료 및 방법: 공시축은 축산연구소 및 23개 시험목장의 한우 2,235두, 젃소 1,929두의 임신모우 및 출생자우 907두를 대상으로 질병(유형별)발생실태조사(품종, 생시체중 등)와 원인규명을 실시하였다.

연구결과: 신생자우의 질병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, 설사병, 폐렴, 패혈증, 기타, 기립불능, 허약 및 식체순으로 발생되어 설사병과 폐렴이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. 품종별 질병발생실태를 조사한 결과, 한우 신생자우가 젃소 신생자우보다 발병율이 약 1.2배정도 높았다.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, 설사병, 패혈증, 폐렴 및 BVD, 허약 등 순으로 나타나 설사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. 또한 한우의 생시체중에 따른 폐사율을 조사한 결과, 저체중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결론: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국내 점차적으로 대규모화되는 소 사육농가의 최대 당면현안사항인 신생자우의 허약자우증후군의 질병발생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제시로 생산성 향상의 도모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.